

“한국인 환자 최적 항혈소판요법 규명”

세계 최고 의학학술지 ‘란셋’ 게재…연구 효과·안전성 입증 AMI 후속연구 국내외 의료계 관심…높은 의료경쟁력 과시

안영근 전남대병원 교수팀 공동연구 논문

전남대학교병원 안영근(사진) 순환기내과 교수팀의 임상연구논문이 세계 최고 의학학술지 영국 ‘란셋(The LANCET)’에 게재돼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과시하고 있다.

국내 심장학 명의이자 현 전남대병원장인 안 교수는 가톨릭의대 장기욱 교수, TALOS-AMI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TALOS-AMI’라는 연구결과 논문(공동저자 정명호·김민철 교수)을 란셋에 발표했다.

지난 1823년 영국에서 창간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학술지로 꼽히는 ‘란셋’은 미국의 학술지 ‘NEJM’과 함께 세계 최고의 의학학술지다.

학술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피인용지수(IF)도 79.32로 세계 의과학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권위 있는 학술지다.

란셋에 연구논문이 게재된 경우는 국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며, 전남대병원에서는 안 교수가 첫 번째 주인공이었다.

이같은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됨에 따라 전남대병원 의료연구의 우수성은 물론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안 교수팀의 이번 논문은 급성 심근경색증환자의 관상동맥 중재술 이후 항혈소판제제의 단계적 감량 요법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것으로 획기적인 연구결



과다. 이번 연구는 항혈소판제제의 단계적 감량 요법을 진행하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서양인과는 다르게 혈전 성향을 갖는 한국인 환자에 대한 최적의 항혈소판요법을 찾아냈다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 연구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32개 주요 심혈관센터에 등록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2천697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환자들 중 성공적인 관상동맥 중재술 이후 급성기 기간인 첫 한 달 동안 주요 이상반응이 없는 안정된 환자들에게 아스피린을 포함한 이중 항혈소판제제 치료 진행 시 한 달 이후 강력한 항혈소판

제제인 티카그렐러에서부터 출혈 위험도가 낮은 클로피도그렐로까지 단계적 감량 요법의 효과를 연구한 것이다.

연구는 대상 환자 중 클로피도그렐 기반 단계적 감량요법군 환자 1천349명, 티카그렐러 기반 유지군 1천348명을 무작위로 재정에 진행했다.

연구결과, 출혈 사건 발생률은 클로피도그렐 기반 단계적 축소요법군이 3.0%, 티카그렐러 유지군이 5.6%로 나타나 클로피도그렐로의 단계적 감량 요법이 출혈 위험을 48%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심장학회에서도 높이 평가해 지난 5월 열린 미국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번 연구에 이어 안 교수팀은 세계 의

료계가 또 한번 주목할 만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또 다른 연구는 다혈관 질환이 동반된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비(非) 원인 혈관 치료의 적절한 시기를 판명하는 ‘OPTION STEMI’로 정명호·김민철 교수, 전국 20개 주요 심혈관센터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다혈관 질환을 갖고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들의 치료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국내외 의료계가 연구결과에 주목을 하고 있다.

세계적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안 교수는 2002년부터 기초 연구 및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국책과제들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이같은 활발한 연구 활동에 힘입어 2014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에 선출됐으며, 2017년 보건의료기초 우수연구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그리고 2018년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에 선출되는 영예도 안았다.

또한 지금까지 총 1천57편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놀라운 연구실적을 기록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심장학 명의로 위상을 굳혀가고 있다.

안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인 환자에 적합한 항혈소판제제의 단계적 감량요법을 밝혀냄으로써 급성 심근경색증 치료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김재봉 광주신세계안과 대표원장이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광주신세계안과 제공〉

전남대병원, 지역 의료기관 협력사업 성과 ‘톡톡’

최근 800번째 협약 체결…7년새 무려 4.7배 늘어

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 의료기관과 원활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협력병원 체결 사업’이 800번째를 달성, 성과를 거두고 있다.

12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 진료 협력센터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협력병원 체결사업은 지역 의료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1·2차 의료기관과 협단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남대병원은 최근 서형연 센터장장을 비롯한 김광순 전남대병원 협력센터팀장, 정은진 화순전남대병원 협력센터팀장으로 구성된 체결팀이 광주지역의 광산수안미래야동병원과 협력병원 800번째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4년까지 170여 곳이었던 협력병원 수가 불과 7년 만에 4.7배

나 늘어나는 놀라운 협력체결 성과를 보였다.

전남대병원의 이같은 성과는 지난 2015년 KTX-SRT 호남선 개통에 따른 지역 환자의 여의유출이 우려됨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병원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해마다 평균 90곳 이상을 체결하면서 2019년 4월 600곳, 2020년 5월 700곳 체결 등 빠른 확장세를 보이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으나 1년여만에 800곳을 기록하게 됐다.

전남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은 환자정보를 공유하면서 진료의뢰 환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1·2차 병원이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들을 신속하게 전남대병

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치료가 끝난 환자는 다시 협력병원으로 돌아와 후속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환자들로서는 타 지역에서 치료받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협력병원 체결사업은 지역의료기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됐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2015년부터 광주권, 전남 동부 및 서부지역으로 순회하며 간담회를 개최, 의료기관들과의 상생의 방안을 논의하면서 협력병원 체결을 활발하게 추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권역별 간담회가 어려워지자 진료협력센터는 ‘찾아가는 협력병원 1대1 간담회’를 추진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병원 구축을 꾸준히 이어갔다. /김동수기자

신세계안과, 호남 첫 다초점인공수정체 5천례 입증

노안·백내장 동시 해결 ‘리사트리’ 렌즈 인기…환자 만족도 최고

광주신세계안과가 호남지역 최초 다초점 인공수정체 리사트리(Lisa tri) 렌즈 5천례를 시술했다.

12일 광주신세계안과에 따르면 리사트리 렌즈 제조업체인 독일의 칼자이스(Carl zeiss)사는 광주신세계안과 김재봉 대표원장에게 ‘리사트리 5천례 기념’ 인증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리사트리 렌즈는 백내장 수술시 혼탁해진 수정체의 역할을 대신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원거리·중거리·근거리 시력까지 함께 교정할 수 있다.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노안수술 렌즈인 리사트리는 독일의 광학기업인 칼자이스에서 출시된 렌즈로, 단초점·다초점 렌즈의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었던 중간거리 시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백내장 수술은 노화로 인해 뿌옇게 된 수정체를 제거하고 원거리 혹은 근거리를 선택해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수술이다.

하지만 리사트리 렌즈를 사용한 노안 백내장 수술은 3중 초점을 잡아줘 백내장도 치료하고 돋보기 등 안경까지 벗게 해준다.

특히 이 렌즈는 망막에 전달하는 빛의 양을 자동으로 조절해 원거리의 빛 양을 분해, 3중의 초점을 잘 볼 수 있게 해준다.

야간 빛 번짐이나 달무리 현상을 개선해 야간 시력의 질을 향상시켜 기존 수술보다 훨씬 선명하고 또렷한 시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김재봉 광주신세계안과 대표원장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돋보기나 안경을 벗을 수 있는 노안 백내장수술을 선택하는 고객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렌즈를 삽입해야 돼 다양한 인공수정체 수술경험이 풍부한 전문의와 상의해야 수술만족도를 한층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백혈병소아암협 광주전남지회

화순전남대병원에 헌혈증 2천매 기탁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이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헌혈증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최근 백혈병소아암과 희귀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헌혈증 2천매를 병원에 기탁했다. <사진>

백혈병소아암협회는 백혈병소아암 어린이가정을 위한 치료 및 가족 지원, 교육·문화활동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김봉학 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 사무국장은 “소아암은 아동 질병 사망원인 1위 질환이지만 빠른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80%가 생존할 수 있다”며 “소아암 어린이들이 회복과 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로 복



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한전KDN 등 나주혁신도시 내 10개 공공기관은 ‘빛가람 사랑의 릴레이 헌혈 행사’를 통해 마련한 헌혈증서 376매를 전달했다. /김동수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